원청교섭 비긴즈

2026-2호

진짜 사장을 찾아서

발행일 2026.7.30.(목) | **발행처** 금속노조 원청교섭 투쟁본부 | **발행인**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 **편집** 정책실 ☎02-2670-9502 | **SNS** 금속노조

한국타이어하청지회 불법파견 승소 기세로! "이젠 열자, 원청교섭"

24일 법원은 한국타이어 대전·금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었다. 원청이 작업표준서·생산계획·전산시스템을 통해 작업 통제해 온 점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출고 등 간접공정에 대한 파견근로도 인정했다.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27일 경기 성남 한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 즉각 개시'와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원청교섭 성실 이행 촉구' 공문을 전달했다.

무슨 호떡집 뒤집개냐? 울산지방노동위원장 즉각 해임 촉구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원청교섭 거부를 규탄했다.

현대차는 교섭요구사실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해야 마땅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울산지노위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도 이를 뒤집어 사용자성 범위와 의제를 과하게 축소했다. 현대차 재벌 봐주기를 위해 개정 노조법을 부정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노동부에 울산지노위원장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시간 끌기 그만! 금속노조, 동희오토 등에 원청교섭 개시 재촉구

금속노조는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현대차, 한화오션, 한국타이어, 현대중공업, 동희오토, 비엠아이 등 원청 사용자에 '교섭 조속 개시·성실 이행 촉구'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여름휴가 이후 금속노조는 현장 조직화와 노동청 전국 동시다발 면담, 상경투쟁 등으로 원청 기업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공동 파업으로 한화오션 원청교섭 돌파할 것”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노동조합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인 올 2월 25일부터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원청교섭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어 개정법 시행일인 3월 10일 한화오션에 원청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한화오션 원청은 웰리브지회를 배제한 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3월 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습니다. 4월 16일 당연히 경남지노위는 웰리브지회도 포함해 교섭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한화오션 원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6월 15일 중앙노동위도 역시 한화오션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나 원청은 행정소송과 더불어 중노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7월 30일 천막농성 156일, 법 시행 143일째를 맞았습니다. 한화오션 원청은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여전히 하청노동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절규했던 2022년에도, 노조법이 개정된 2026년에도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에 맞서 하청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원청 한화오션에 맞선 파업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동자 권리는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투쟁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4년이고 5년이고 원청은 절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쟁의조정 절차를 통해 7월 2일 경남지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을 상대로 하는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웰리브지회와 함께 여름휴가 이후 본격적인 파업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한화오션 야드에서 힘차게 총파업 깃발을 휘날리며 원청교섭을 열 것입니다. 한화오션 원청교섭 돌파로 금속노조 원청교섭 투쟁의 큰 물줄기를 만들겠습니다.